



▶ 숙명여학교 재학시절 (1923년).
 ◀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시절 (1930년대).
 ▼ 북한의 국립체육위원회 단원들과 최승희 (1983년).

최승희 희귀사진들 화보로 본다

■ 정수용PD '최승희...' 퍼내

■ 월북무용가 최승희 (1911~?)의 미공개 사진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진과 자료를 엮은 책이 나왔다. 2002년 다큐멘터리 '세기의 무희 최승희'를 제작했던 PD 정수용 (61)씨는 10여년을 수집해온 사진 등 관련자료를 모아 '최승희-격동의 시대를 살다'라는 무용가의 생애와 예술 (눈빛)을 펴냈다.

정씨는 "최승희의 다큐멘터리를 찍어 아재고 결심한 1982년부터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을 돌며 사진과 필름을 모았다"며 이런 시절의 모습부터 중국, 북한에서 활동한 사진까지 최승희의 남아있는 사진은 거의 다 포함했다"고 말했다. 300여장에 달하는 사진들은 숙명여고,

이시이 바쿠 (石井漢) 무용연구소 시절 등 초기부터 월북 이후 활동상, 전성기에 촬영했던 광고사진 등 희귀자료도 다수 들어 있다. 정씨와 최승희의 인연은 그녀의 남편 안택의 친동생이자 북한 최승희무용연구

중·러 등 돌며 10여년 모은 300여장 공개 친일·월북관련 해명 친족 대담으로 실어

소 부강복으로 일했고 대한무용학회장을 지낸 무용이론가 안제승 (1906년 별세)씨와의 만남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안씨가 서리밭예술대 무용과 주임교수로 있을 때 정씨는 조교로 있었고 이후 최승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됐다. 최승희는 일제 강점기였던 1930~40년대 '동양의 진주'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일본과 유럽, 미국 등 세계무대에서 알아주는 무용가였다. 46년 남편 안택과 함께 월북해 60년대초까지 북한과 중국 문화계에서 주요인물로 활동했으나 그 이후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월북인사(단) 이유로 국내에

선 금기시됐고 또한 친일행적이 문제되기도 했다.

이 책에는 저자가 안제승씨와 그의 부인인 이자 남한에 있는 최승희의 직계 제자이며 동서 사이의 간백봉씨 두사람과 1994년에 나는 대담이 실려있다. 실제 최승희와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의 대담은 최승희의 인간적인 면모를 물론, 역사속에

서 희생적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엿보게 한다. 특히 친일행적과 관련, 최승희는 일본무용을 흉내낸 것을 감요받고 일본군과 민주군의 위문공연에 플라디니는 등 일제에 의해 강제된 행각들에 대해 괴로워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고 진다.

월북과정도 남편 안택과 중국 베이징에서 해방을 맞았으나 연안과가 먼저 북으로 가고자 권유해 북으로 갔을 뿐 만약 일시정부 사람들이 먼저 귀국을 증명했다면 남쪽으로 왔을 것이라곤 얘기한다.

정씨는 "책이 출간된 뒤 김백봉씨를 찾아가 최승희의 영정 앞에 제일 먼저 책을 올렸다"며 "최승희 탄생 100주년인 되는 2012년 최승희의 북에서의 마지막 행적과 그의 가족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주영기자 eyec@munhwa.co.kr

"東亞에 북로드를" 4개국 공동출간

<Book-road>

한·일·중·대만 출판인들 각국 현황·미래 등 책으로

■ 한국과 일본, 중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 4개국의 출판인들이 모여 '동아시아에 새로운 책의 길을 만든다'는 책을 공동으로 냈다.

지난 3월 일본어판이 나온데 이어 한국

출판마케팅연구소(소장 안기호)의 한국어판이 최근 나왔다. 올해안에 간체자판(중국), 번체자판(대만), 영어 등 총 5개 언어로 출간될 예정이다. 동아시아 출판인들이 각국의 출판 현황과 미래를 조망하는 책을 공동으로 만들기는 처음이다.

기획에서 편집·출간까지 1년이 소요된

이 작업에는 한국의 한 소장자를 비롯, 중국과 류우리 (베이징 완정수위안 대표), 대만의 허오밍이(다카이원화추반 대표) 등 젊은 출판인들이 참여했고, 일본의 가토 게이치(전 미쓰즈소보 대표) 편집을 맡는 등 동아시아의 출판인과 편집자, 디자이너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한 소장은 "동아시아는 중국대학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이르는 북로드(book road) 즉 '책의 길'이 있었다"며 "20세기 후반 동아시아 출판은 정치·경제적 환경에 의해 폐쇄적인 모습을 띠 수밖에

없었으나, 다시 책의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서로간의 소통을 이뤄내는 시도다"고 이번 작업의 의미를 설명했다.

책에는 동아시아 출판프로젝트의 의의를 논하는 머리말과 출판의 비약적인 발전을 꿈꾸는 중국측 편집인과 작가집체에 빠진 일반 편집인의 왕복서간이 실려있다. 10쪽으로 구성된 화보에는 각국의 출판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과 글이 실려있으며, 19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나라별 출판현황보고서도 도표와 데이터로 분석돼 있다.
 임주영기자

미래사회의 새로운 문화코드를 찾아서

문화일보·경희대 NGO 대학원 공동주최 특강

⑧ 상생의 조건 - 회색지대를 말한다 <글>

'열린공간' 서 사유하자

■ 요즘 상생이란 말이 정치권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지도자들이 상생의 가치를 내세우며 정국의 해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러한 행보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의 낯살을 휘감아 싸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그간 대립과 투쟁, 정국의 역사로 정국이란 단어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아니나 다를까, 상생의 해법은 최근 각종 정치권 안에서 보여지듯 대립과 정위를 위한 정치적 수사(修辭), 혹은 도구로 전락하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 여야, 좌와 우, 보수와 혁신의 해법은 핑거로 대결정치가 정치권 도처에서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모름의 미학

이러한 고요적 나뉘고 대결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정답의 정치'에서 비롯된다. 나뉘면 안다, 맞다, 옳다는 판단이래

에 기초한 정치권의 상생정치는 편견 위에 쌓아올린 모래성일 따름이다. 특히 '모름의 미학'을 배제한 상생정치는 말의 성장, 정치의 기술인 것이다. 그러나 소통과 대화, 공감과 합의란 수평적 미덕이 필수적인 진정한 상생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름, 따라서 열린의 회색지대(gray area)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또 다른 열린, 회색지대 회색지대란 이도 저도 아닌 것을 의미하거나 기회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알과 모름의 중간지대다. 백락을 오차하려는 개념 범주에 종속되지 않은 열린 공간 그 자체인 것이다. 상생이 만일 나뉘고 진리를 초월해야 한다면, 그 초월의 가능성은 바로 이 회색지대로부터의 사유에서 출발해야 한다. 긍정의 시간에서 바라볼 때, 우리 정치권은 이미 초극과 회색지대로의 모험을 시작했다. 무딘칼은 칼과 힘의 상생(相

알-모름 중간의 회색지대서 사고해야 '정치적 수사' 아닌 진짜 상생 길 열려

선긋기, 핑거르기, 겨루기의 정치가 시작된다. 나뉘면 안고, 맞고, 옳다는 판단이래 선 타인의 견해는 단지 무시의 대상, 배척의 대상, 기껏해야 훈육과 설득의 대상 일 뿐이다. 내가 정답인 이상, 타자의 인식과 입장은 배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상생정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나뉘고의 보편, 나뉘고의 진리는 극복해야 한다. 자신의 개인 세계에서 벗어나 타자의 결별한 생각과 느낌, 중요하게는 신념으로부터 해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신념없는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다. 하지만 나뉘고의 신념, 곧 패색된 인과(因果)의 자의적 개념설정은 '자적인 사랑', '의식의 자제'를 초월할 뿐이다.

이인수타인은 우주의 일부인 인간은 지적, 사회적 현상인 간극에 갇힐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지적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속해있는, 아니면 속해있다고 스스로 믿는 주변의 제한성에 매달려 그 밖의 무한한 세계의 가능성을 예외의 면하는 존재라는 시각이다. 열렬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과학의 세계가 만일 그렇다면 집합도 맞듯 요즘처럼 인간의 마음이 연무된 정치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모든 진리는 공통 분해될 수밖에 없다'는 말처럼 정치는 무한히 가변적이다. 이런 점에서 정답집적, 자신만의 진실

의)정치를 초월해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공언(公言)이 의도된 전술적 공언(宣傳)이 아니라 최소한의 의미에선 그렇다. '정답'이란 일부 답지 않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생각과 이념 그리고 배경을 가진 정객이 여야, 좌부 도처에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의양상의 열림에도 불구하고 상생정치를 구현을 위한 실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의식의 열림,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위한 끊임없는 내면의 성찰과 각성이 바로 그런 방향일 것이다. 설명의 양상 열림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각기 다른 의식이 서로 달랐던 것이라면 더욱 다양하고 차이를 표현한 정치가 양산될 뿐이다.

상생은 앞서 말했듯이 다양한 주체간 소통과 대화, 공감과 합의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수평적 연계는 바로 회색지대, 진리의 복수적(複數的) 현실과 모름의 무한한 창조 가능성을 승인하는 비장한 도전의식'의 공간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날아서고, 벗어내고, 교감하는 의식, 모름의 관용을 참치하는 의식, 우주의 생명, 인간과 정치의 근원적 시초가 밝혀질 때까지 이렇듯 이 유일무이한 '정답'이 될 것이다. 진정한 상생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가기 위해... 조인원(경희대 NGO대학원장·정치학과교수)



편집·이영민기자 changlee@